

## 2011학년도 수능 언어 적중 문제

### 1. 수능 40-43번. 이호철 '나상(裸像)'

교재 명칭 : “필(必) 적중 파이널 평가원 언어논리 시뮬레이션 ”

언어 이것이 출제된다. 4회 모의고사

교재 p134-136

1. 수능 40번 - 교재 p135. 28번. 인간성의 탐구

인강 4강 4-2강. 인강 시간 29: 34

### 2. 수능 37-39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 교재 명칭 : “EBS 핵심 정리- 평가원 완벽독과”

교재 p

인강 7회 강의

인강 시간 1:06:44 -1:12:20

### 3. 수능 13-16번 현대시

16번 선제리 아낙네들

- 교재 명칭 “필(必) 최종 파이널 EBS 핵심정리- 평가원 완벽독과”

인강 - 8회, 5강. 시간 46:40-47:00

### 4. 수능 11번. 동음이의어, 다의어

필(必) 최종 파이널 EBS 핵심정리 & 평가원 완벽독과

3회 적중 시뮬레이션 모의고사

교재 p190

### 5. 수능 21-24 과거와 현대 예술의 관점

- ‘비문학 개념어와 논리적 독법’

교재 p25-27 (전통도상학 : 신미술사학)

교재 p29-30 (전통예술과 최근예술)

교재 p75-76 영화의 구성원리

교재 p65-66 최근의 새로운 예술

### 6. 27-31 고전복합

상춘곡 - “올해의 평가원 출제예상 풀이법“ 교재 p15-16 / 평가원 100% 독과법 p109

율리우스 - “올해의 평가원 출제예상 풀이법” 교재 p14-15

27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 - 설의적 표현

문학 개념어와 논리적 해석 p469. 3-2. 설의

### 7. 수능 47-50. 고소설 ‘운영전’

평가원 100% 독과법 <소설과 공간> p277-279

47번. 은섭이는 원망하지 않았다.  
49번. <보기> 감상. 고소설의 현실성  
- 평가원 100% 독과법 p127-129

-----  
<2011학년도> 수능 적중 문제 교재 수록된 내용

1. 수능 40-43번. 이호철 '나상(裸像)'  
필(必) 적중 파이널 평가원 언어논리 시뮬레이션  
언어 이것이 출제된다. 4회 모의고사  
교재 p134-136  
1. 수능 40번 - 교재 p135. 28번. 인간성의 탐구  
인강 4강 4-2강. 인강 시간 29: 34

교재 p134-136 출제 예상 ; 현대소설 나상(裸像) 이호철

<줄거리> - 여름 저녁에 '나'는 '철'로부터 전쟁 때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 함께 이송되었던 형과 아우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가족들은 매사에 상황에 맞지 않은 어수룩한 행동을 하는 형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지만, 포로로 잡히게 된 이후 형은 답답에 걸린 다리가 오랜 행군으로 굶아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고 결국 행군 중 주저앉게 되어 북한군의 총을 맞아 죽게 된다.마지막에 '나'는 '철'로부터 이야기 속의 동생이 자신이라는 고백과 함께 형과 함께 했던 일화들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적 목소리를 듣게 된다.

해방 이듬해 삼팔선을 넘어올 때 모두 긴장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판에 큰소리로,  
“야하, 이기 바루 그 삼팔선이구나이 야하.”

이래놔서 일행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일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때도 형을 쥐어박았고, 형은 엉엉 울었고, 어머니도 찢끔찢끔 울었다. 아버지는 애초부터 이 형을 단념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불쌍해서 이따금씩 찢끔거리곤 했다.

[A] 물론 평소애 동생애 대한 형으로서의 체모나 위신 같은 것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이미 철들자부터 형을 대하는 동생의 눈언저리와 입가엔 늘 쓴웃음 같은 것이 어리어 있었으니, 하얀 살갗의 여원 얼굴에 이 쓴웃음은 동생의 오연한 성미와 잘 어울려 있었다.

어머니는 형애 대한 아버지의 단념이나 동생의 이런 투가 더 서러웠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형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동생의 표정에 구애 없이 하루하루가 그저 천하태평이었다.

사변이 일어나자 형제가 다 군인의 몸이 됐다.

1951년 가을, 제각기 북의 포로로 잡혀 북쪽 후방으로 인계돼가다가 들은 더럭 만났다. 해가 질 무렵, 무너진 통천(通川)읍 거리에서였다.

형은 대뜸 울음보를 터뜨렸다. 펄렁한 야전잠바에 맨버리 바람이었고, 털털털리한 군화를 끌고 있었다.

동생도 한순간은 흠칫했으나, 형이 울음을 터뜨리자 난처한 듯 살그머니 외면을 했다. 형애 비해선 주제가 조금 깔끔해서 산뜻한 초록색 군 작업복 차림이었다. (중략)

이날 밤이 깊도록 형은 울음을 터뜨리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 모두 굉장히 웃을 기다, 더구나 어머니 허리가 끊어지게 웃을 기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고 연방 지껄이며 혼자 히득히득거렸다.

이따금 또 흠칫흠칫 놀라며,

“아아, 너, 저 개 소리 듣니?”

“.....”

“기러기 소리 듣니?”

“.....”

사실 이따금 개가 짖고 하늘 한가운데로 기러기가 울며 지나가고 하였다. 형은 무슨 깊은 생각에나 골똘 하듯 한참은 말이 없었다.

이튿날 저녁도, 그 이튿날 저녁도 형은 꼭꼭 그 경비병에게서 밥 한 덩이를 얻어 넣었다.

그 사람은 얼굴이 검고 두 눈이 뒤룩뒤룩한 게 꽤나 익살꾸러기이면서도 한편으로 성미 급한 우악스런 데가 있어, 걸핏하면 너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너의 집인 줄 아느냐 하며 총대로 형을 후려치는 것이었지만, 형이 엉엉 울면 너털너털 웃으며 도리어 재미있어 했다.

더러 저녁이면,

“야, 낮에 맞은 값이다..... 네 어머니 노릇을 내가 좀 해야겠다.”

하고 꼭 밥 한 덩이를 더 던져주곤 했다.

[중략 부분 줄거리]

형은 거의 매일 경비병에게 밥 한 덩이를 얻어 숨겨 놓았다가 밤마다 동생과 나눠 먹는다.

[B] 이렇게 며칠이 지나는 사이에 동생은 이런 형 앞에 지난날 스스로가 간직하고 있었던 오연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이 남부끄럽다거나 창피하다거나 그렇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조금 어처구니없었으나 이런 형인 까닭으로 해서 도리어 마음이 개운해지는 것이 아닌가. 해죽하게 두 팔을 들어 올리는 싱거운 뒷모습이 오히려 어울리는 형의 모습이긴 하다! 생각하며, 이런 꼬락서니로 형과 만나진 데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이런 형일수록 오히려 형다운 것이, 어처구니없는 즐거움 같은 것조차 울컥 느껴지는 것이다. 종래의 모든 것을 사그리 체념해버리고 잃어버린 지금, 마음 밑바닥에 철저한 무심(無心)이 자리 잡고 있다고 자신하면서도 이런 형의 그 마음가락에 휩쓸려 들어가는 스스로를 의식하며, 벽차게 서러워오고, 지난날의 형에 대한 마음으로 스스로가 후회되며, 더불어 엉뚱한 향수 같은 것이, 즐거움 같은 것조차 느껴지는 것이었다. 지금 이런 형에게서 의지, 논리로써 얻어진 신념 같은 것이 멀리 미치지 못할 어떤 위엄 같은 것조차 느껴지는 것이다.

어느 날 밤, 동생은 형에 귀에다 입을 대고 불쑥,

“넌은 세수나 좀 하자.”

하고는 픽 웃어버렸다. 처음으로 형에게 한 말이었다.

“.....”

형도 어둠 속에서 와락 두 눈이 휘둥그래지더니 피식 웃었다.

“야하, 이젠 꽤 춥다야.”

이렇게 엉뚱하게 받았다.

이호철, '나상(裸像)'

## 28.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인 '나'는 과거에 체험한 것을 현재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 ② 외부 관찰자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의 독백을 중심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④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중심 인물의 성격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⑤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시대적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9. 위 글의 등장인물이 했음직한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비병 : 자꾸 귀찮게 굴어 모질게 때리기는 했지만, 영 맘에 걸려 밥 몇 덩이를 주었지.
- ② 동생 : 상황에 따라 이성적으로 적응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형을 보며 배운 점이 많았어.
- ③ 형 : 동생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관심이 없어. 나 또한 배고프고 힘들지만 형으로서 동생을 보살피줘야 하지 않겠어?
- ④ 아버지 : 큰 아들은 미숙하니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야.
- ⑤ 어머니 : 큰 아들을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에 속만 더 타들어가.

**30. 위 글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삼팔선’은 해방 이후의 평화를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
- ② ‘삼팔선’은 가족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 ③ ‘통천(通川)읍 거리’는 형제의 대립 심화를 암시하는 공간이다.
- ④ ‘포로 수용소’는 동생이 형을 재인식하게 되는 공간이다.
- ⑤ ‘포로 수용소’는 형제가 서로에 대한 오해를 푸는 공간이다.

**31. 위 글을 <보기>에 비추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두 개 고르기>**

<보 기>

「나상(裸像)」은 ㉠ 액자식 구성의 소설로, 여름 저녁 ‘나’가 ‘철’에게 이야기를 듣는 부분인 외화와 ‘철’의 이야기인 내화로 이루어져 있다.

중심 내용인 내화는 ㉡ 대조적인 두 인물과 ㉢ 각각의 삶의 방식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 한 인물의 언행에 따른 다른 인물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 ‘극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진다.

- ① ㉠을 미루어 보았을 때, 위 글은 ‘나상(裸像)’의 내화부분으로 작품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 ② ㉡의 두 인물은 형과 동생이며, [A]에 두 인물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 ③ ㉢에서 형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주체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동생은 이념보다 인간성의 발견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B]를 통하여 ㉣이 드러나며 동생의 형에 대한 기존의 시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B]를 통해 ㉤과 같은 주제의식이 잘 드러나며 어떤 삶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작가는 유보함으로써 삶의 방식에 두 인물의 삶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소설] - 이호철의 ‘나상(裸像)’**

28-④, 29-②, 30-④, 31-③.⑤

**2. 수능 37-39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 교재 명칭 : “EBS 핵심 정리- 평가원 완벽독파”

인강 7회 강의, 4장 보충자료

- 교재 명칭 “power 쓰기 어법” p258-268

인강 시간 1:06:44 -1:12:20

교재 Power 쓰기, 어법 p258

### 8. [단어 형성법]- < 합성어, 파생어 >

- < 동사, 비동사적 합성법 >

\* 가슴에 새길 말

1. 다음 용어들을 철저히 익힐 것.

2. 단일어 :

3. 복합어 = (     ) + (     )

4. 합성어 = 어근(語根) + 어근(語根)

어근(語根) :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ex) 논밭, 군세다, 새마을

5. 파생어(派生語)

= 어근(語根) + 접사(接辭)

= 접사(接辭) + 어근(語根)

ex) 공부하다 = 공부(    ) + 하다(    )

지붕, 믿음. - 파생어

#### 개념:

접사(接辭) : 어근에 붙어 뜻을 제한하는 부분

-관형사와는 달리 몇몇 어근과만 결합한다.

- 접두사 : 한정적 접사로만 쓰인다. (품사를 바꾸지는 못한다.)

‘개’- : ‘야생’, 질이 낮은, 함부로 된.

ex) 개나리, 개떡, 개살구

‘돌’ : 순수하지 않은, 질이 낮은.

ex) 돌미나리, 돌배, 돌각정이

‘들’ : 야생

ex) 들깨, 들국화, 들기름

‘꽃’ : ‘덜 익은’ / ‘선’ : ‘익숙하지 못한

ex) 풋감, 풋겉, 풋곡식, 선머슴, 선무당, 선손질

‘치’: ‘거슬러

ex) 치밀다. 치솟다. 치받치다.

### - 접미사

#### <접미사의 두 용법>

1) 한정적 접사 : 목+아지(모가지), 선생 + 님(선생님), 낚시+질(낚시질), 욕심+꾸러기(욕심꾸러기), 짜임+새(짜임새)

2) 지배적 접사 : 품사를 바꾼다.

ex) 슬프(형용사)+ㅁ = 슬픔(명사),

학생(명사)+답다 = 학생답다.(형용사)

슬기(명사)+롭다 = 슬기롭다.(형용사)

덜(동사)+개 = 덜개

막(동사)개 = 마개

지우(동사) + 개 = 지우개

맞(동사) + 우 = 마주

많(형용사) + 이 = 많이(부사)

가난(명사) + 하다 = 가난하다(형용사)

### 중요! [기초 개념어 총정리 ]

#### cf) ‘접사’와 ‘어미’, ‘어간’, ‘어근’

1. 어근(語根) : 단어를 형성할 때 낱말의 핵심적 의미를 이루는 실질 형태소

2. 접사 :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거나 문법적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

2-1. 파생접사: 어근에 붙어서 단어 파생에 기여하는 접사 .

2-2. 굴절접사 : 용언의 끝에 붙어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접사.

**[핵심 정리] :**

‘접사(接詞)’는 ‘어근(語根)’에 대응하는 개념

‘어미(語尾)’는 ‘어간(語幹)’에 대응하는 개념

**[어간 = 접사 + 어근 ]**

어간에 접사가 없는 경우, 어간이 곧 어미

ex) 놀다. = 어간= 어근

ex) 공부하다 = 공부(어근) + 하(파생접사) + 다(굴절접사)

어간 : ‘공부하’ / 어미: ‘다’.

ex) 깔보다 = 깔(파생접사) + 보(어근) + 다(굴절접사)

어간 : ‘깔보’ / 어미 : ‘다’

ex) 시건방지다 = 시(접사) + 건방(어근) + 지(접사)

어간 : ‘시건방지’ / 어미 : ‘다’

ex) 알록달록하다. = 알록(어근)+달록(어근)+하(파생접사) + 다(굴절접사)

어간 : ‘알록달록하’ / 어미 : ‘다’

ex) 새하얗다. = 새(접사) + 하얗(어근) + 다(굴절접사)

어간 = ‘새하얗’

어미= ‘다’

\* 분석 과제

ex) 그 일을 밝히셨다.

건물을 세웠다.

붉그락푸르락하다. (어근 중복)

**6. 관형사(冠形詞) :** 모든 피수식어와 연결될 수 있는 접이 접사와 다르다.

ex) 새 옷. 새 집, 새 연필, 흰 옷

/ \*맨 옷, \* 맨 집, 맨손(접사는 붙여쓴다.)

**7. 통사적 합성어** :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는 합성어

통사(統辭) : 문장 성분들이 모여 문장을 구성하는 데 쓰이는 모든 규칙. 한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의 조직, 구조.

- ① 명사 + 명사 : 길바닥, 논밭, 집안, 꽃게, 눈물
- ② 관형사 + 체언(명사) : 새해, 이승, 첫사랑, 끝물
- ③ 주어+ 서술어 : 힘들다(힘이 들다), 철들다.  
목적어 + 서술어 : 본받다, 힘쓰다, 장가들다.  
부사어 + 서술어 : 앞서다, 가로놓이다. 손쉽다.
- ④ 어간 + 어미 : 돌아가다, 찾아보다, 스며들다.

**8. 비통사적(非統辭的) 합성어**

: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서 벗어난 합성어.

- ① 어간 + 명사 : 접칼 (접은 칼 - 통사적 합성어), 꺾쇠, 덮밥, 늦잠, 김버섯
- ② 의태 부사 + 명사 : 부슬비(부슬부슬 내리는 비), 산들바람, 출렁새, 척척박사
- ③ 어간 + 어간 : 굽주리다, 오르내리다, 여닫다, 날뛰다, 우짖다, 듣보다, 굳세다, 높푸르다.

**9. 음성(音相)** : 음의 종류에 따른 어감의 차이를 불러오는 것.

ex) 모음의 차이 : 양성 모음, 음성 모음

- 발강다. 벌정다.

자음의 차이 : 단단하다. 뚝뚝하다. 탄탄하다.

감감하다. 깜깜하다. 캄캄하다.

**10. 상징어** : 음성 상징, 의태 상징

- 교재 명칭 : “EBS 핵심 정리- 평가원 완벽독파”

인강 7회 강의, 4강 보충자료.

- 교재 명칭 “power 쓰기 어법” p258-268

인강 시간 1:06:44 -1:12:20

이미 써 오던 말을 새말로 바꿔 쓰자고 하면 민중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새말이 익히 쓰이던 말을 제치고 통용되는 일도 있다. ‘도시락’이란 말이, 이미 익히 써 오던 ‘벤또’를 대체한 것이 그 예다. 심지어 ‘덮밥’은 국어에서는 매우 ㉠혼하지 않은 조어(造語)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써 오던 ‘뚝부리’를 대체하고 완전한 생명을 얻었다. 이런 새말들이 성공적으로 통용될 수 있었던 것은 대체된 말인 ‘벤또, 뚝부리’가 일본어에서 유래한 외래어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조어 방식에 문제가 되는 말이거나 느낌상 다소 어색하고 생소한 말 이더라도 ㉢강력한 동기가 제공될 때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같은 계열의 외래어인 ‘센누끼’는, 광복 후 오랫동안 ‘마개뽑이’가 권장되었지만 민중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후에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병)따개’로 대체되었다. 아마도 이는, ㉣새말이 내포하는 뜻이나 정서적 느낌이 대체될 말과 달랐던 것에서 비롯하였던 듯하다. 물론 조어 방식이나 길이가 문제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데이트’를 ‘만날 약속’으로, ‘결벽(潔癖)’을 ‘깨끗 버릇’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 적도 있으나 이들도 생명력을 얻지는 못하였다. 진자는 그 뜻이나 느낌이, 후자는 조어 방식이 문제가 되는 말이었다 까닭에 살아남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 ‘데이트’는 만나기 위한 약속만을 가리키지는 않기 때문에, ‘버릇’은 ‘손버릇, 잠버릇’에서 보듯 명사와만 결합하며 ‘깨끗’과 같은 어간에는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는 것이다. 새말을 만드는 일이, 그리고 익히 쓰이던 말을 대체하기 위해 새말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 주는 예들이다.

1. ㉠~㉣의 구체적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늦잠 자다에서 ‘늦잠’
- ② ㉡ : 하늘은 ‘높푸르다’.
- ③ ㉢ : ‘헤어스타일’을 대체할 말로 제안되었던 ‘머리꼴’
- ④ ㉣ : 자연스럽게 마음에 스며들다.
- ⑤ ㉣ : 동사 어간 ‘떡-’과 의존 명사 ‘거리’를 결합하여 만든 ‘떡거리’

2. 문맥상 나)의 ㉢가 뜻하는 것은?

- ① 신개념 생성                      ② 실제적 필요
- ③ 참신한 표현                      ④ 민족 정서
- ⑤ 학교 교육

3. ㉢ ‘강력한 동기’의 의미는?

- ① 언어 의식
- ② 사회 의식
- ③ 새말 의식
- ④ 조어 방식
- ⑤ 민족 의식

1. 문법 수업 시간에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단어의 형성’에 대해 탐구한 결과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며,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 한다. 어근은 다른 어근이나 접사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 어근이 어근과 결합하면 ‘합성어’라고 하고, 어근이 접사와 결합하면 ‘파생어’라고 한다. 합성어가 새로운 단어로 파생되기도 하고, 파생어가 다른 어근과 결합하여 합성어가 되기도 한다.

- ① ‘바다’, ‘맑다’는 하나의 어근으로 되어 있으니 단일어이다.
- ② ‘밤낮’은 ‘밤’이라는 어근과 ‘낮’이라는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 ③ ‘웃음’은 동사 어근 ‘웃-’에 접미사 ‘-음’이 붙어 명사가 된 파생어이다.
- ④ ‘결눈질’은 합성어 ‘결눈’에 접미사 ‘-질’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 ⑤ ‘회덮밥’은 파생어 ‘덮밥’에 새로운 어근 ‘회’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4강 보충자료 정답.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1-④, 2-④, 3-⑤

1-⑤

3. 수능 13-16번 현대시

16번 선제리 아낙네들

- 교재 명칭 “필(必) 최종 파이널 EBS 핵심정리- 평가원 완벽독파”

p217

인강, 8회, 5강. 인강 시간 46:40-47:00

(나) 떡밤중 한밤중 새터 증뜸 개들이 시끌썩하게 짚어댄다.

이 개 짚으니 저 개도 짚어  
들 건너 갈피 개까지 덩달아 짚어댄다.

이런 개 짚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콩밭 김칫거리 /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묵은 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과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야 가볍지만

㉠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린다.

-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주제 : 선제리 아낙네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살펴본 서민들의 애환 / 가난하면서도 의좋은 민중들의 삶의 모습

해제 : 이 시의 제목을 보면 두 가지 정보를 암시하고 있다. 첫째는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이 '선제리'라는 마을이고, 둘째는 이 시의 중심이 되는 시적 대상이 '아낙네들'이라는 점이다. 이 시의 이해와 감상의 포인트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시상을 전개할 때 감각적 이미지, 그 중에서도 청각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가난으로 인한 고단하고 힘겨운 현실을 개인적으로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상황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시인은 이 시를 통해 가난한 민중들의 힘겨운 삶의 모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자락의 희망, 한 가득의 가능성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성

- 1연 : 한밤중에 시끄럽게 짖어대는 개들의 소리
- 2연 : 시끄러운 개 소리 사이로 들리는 아낙네들의 말소리
- 3연 : 장을 보고 밤늦게 귀하는 선제리 아낙네들
- 4연 : 가난 속에서도 서로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선제리 아낙네들
- 5연 : 아낙네들의 말소리와 개들의 소리 속에 점점 깊어가는 선제리의 밤

#### 4. 수능 11번. 동음이의어, 다의어

필(必) 최종 파이널 EBS 핵심정리 & 평가원 완벽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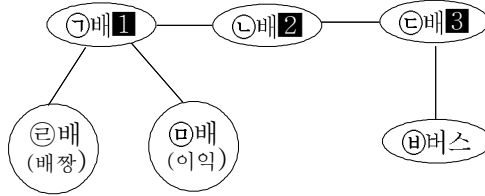
3회 적중 시뮬레이션 모의고사

교재 p190

11. <보기>는 국어사전을 토대로 '배'와 관련된 어휘 사이의 의미 관계를 구조화한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배 ①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가슴과 엉덩이 사이의 부위.  
 ② 배나무의 열매.  
 ③ 사람이나 짐 따위를 싣고 물 위로 떠다니도록 나무나 쇠로 만든 물건.



- ① “뻔뻔스럽게도 못 들은 척 배만 내밀고 있잖아.”의 ‘배’는 ㉠과 ㉡의 관계이다.  
 ② “자기 배만 불리기에 정신이 없었다.”의 ‘배’는 ㉤과 상통하며 ㉠, ㉡과 ㉢의 관계이다.  
 ③ ㉣과 ㉤은 의미상의 관련이 있다.  
 ④ ㉢과 ㉥은 특정 단어와 상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⑤ ㉠, ㉡, ㉢은 의미상의 관련이 없다.

답 : ②

5. 수능 21-24 과거와 현대 예술의 관점

- ‘비문학 개념어와 논리적 독법’

- 교재 p25-27 (전통도상학 : 신미술사학)  
 교재 p29-30 (전통예술과 최근예술)  
 교재 p75-76 영화의 구성원리  
 교재 p65-66 최근의 새로운 예술

19세기에 독립된 학문으로 출발한 미술사학은 작품의 형식 분석에 몰입하거나 도상해석학을 이용해 작품의 상징을 파악했다. 이러한 작업은 작품의 의미와 조형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선대부터 대가로 평가된 작가들의 배타적 지위를 공고히 하거나 새로운 걸작을 발견하고 재조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뒷받침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후 미술사 연구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라파엘로의 ㉠ <작은 의자 위의 성모>(1514)에 등장하는 성모와 아기 예수, 세례자 요한을 기독교적 도상에 따라 이해하고, 그 주제를 담아내는 형식—안정된 구도, 그림에 활력을 주는 삼원색의 대비, 적색과 녹색의 보색 대비 등—의 완벽함을 밝힘으로써 작가와 작품의 미술사적 의의를 서술하는 것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은 현대 미술 작품의 해석과 평가에도 유용한 것일까?

심장이 몸 밖으로 드러난 채 가는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두 여인을 그린 프리다 칼로의 ㉡ <2인의 프리다>(1939)를 살펴보자. 왼편의 여인은 오른손에 가위를 쥔 채 지혈을 하고 있다. 오른편 여인은 한 소년 이 그려진 동그란 형태의 작은 물건을 왼손에 쥐고 있는데, 숨긴 듯 그려진 이 소년은 남편 리베라의 모습이다. 전통적인 도상해석학은 이 그림의 의미 파악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통적인 성화 속의 피 흘리는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17세기 정물화 속의 양초와 해골이 인생의 덧없음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관계적인 상징 체계는 이 그림 속의 요소들과는 깊은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

러한 해석의 난점을 풀기 위해 어떤 미술사학자는 정신분석학의 이론을 빌려와, 칼로가 무의식적으로 남편 리베라를 아버지로 대체하였고, 그런 심리적 과정이 그의 자화상 속에 드러난다고 해석하였다. 기이한 분위기와 생경한 색채로 인해 초현실주의적인 그림으로 주목을 받았던 칼로의 작품은 이와 같은 새로운 해석에 의해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

칼로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 미술가들이 과거의 전통적 주제나 상징 체계에 의거해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점으로 볼 때, 도상해석학이 한계를 지닌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고상한 주제나 지적 유희를 즐겼던 미술 후원자의 주문에 따라 그림을 그리던 방식에서 벗어나 화가 자신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의지에 따라 그림을 그리게 된 현대 미술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미술사를 바라보는 미술사학자들의 태도도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했다.

새로운 미술 환경에 맞는 미술사학의 관점과 이론을 모색하는 일군의 이론가들이 198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경향은 ‘신미술사학’이라고 불린다. 신미술사학의 대표적인 연구자 중의 한 명인 프리치 오시는 탈구조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기존의 미술사학을 지배했던 주도적인 이데올로기, 즉 미술사는 예술적 천재에 대한 찬양과 미적 보편성에 전념해야 한다는 믿음을 반성한다. 한편 다른 이론가들은 기존의 미술사의 주체가 서양 백인 남성이었다는 점과 방법론이 도상해석학과 형식 분석에 제한되었다는 점을 반성한다. 이에 따라 신미술사학자들은 여성 미술가, 흑인 미술가 등으로 표상되는 사회 계급, 젠더, 섹슈얼리티라는 다층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정신분석학 등 다양한 방법론을 자신의 것으로 적극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과 기존의 다양화는 동시대의 그림뿐 아니라 과거의 미술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과 가치 평가를 가능케 한다.

**[A] [그려질 당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젠틸레스키의 ㉠ <유디트>(1620)가 재평가되는 것도 신미술사학의 방법론을 통해서이다.]** ‘유디트’는 서양 미술사에 많이 등장하는 주제 중의 하나인데,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시리아 장수 홀로페르네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의 목을 베는 젊은 미망인 유디트와 하녀가 등장한다. 젠틸레스키의 그림에서는 죽음에 저항하는 남자와 목적을 이루려는 두 여인의 동작과 표정이 명암과 색채 대비를 통해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표현되었다. 가치 있는 주제를 극적인 방식으로 표현했음에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이 작품은 페미니즘의 관점을 통해 폭넓게 이해되었고 그에 따라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처럼 신미술사학은 미술을 역사와 사회 상황 같은 다양한 맥락과 굳게 연대시킴으로써 우리에게 풍요로운 작품 해석과 평가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1.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미술사학에 대한 신미술사학의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적 가치의 기준이 상대적이라고 전제함으로써, 다양한 방법론을 수용하기 어렵다.
- ② 예술적 천재에 대한 믿음에 근거함으로써, 계급, 젠더, 섹슈얼리티 등 다층적 정체성에 대한 해석이 어렵다.
- ③ 작품의 해석에서 상징을 고정된 의미로 풀이함으로써, 전통적 상징 체계를 따르지 않는 현대 미술 작품의 해석에 어려움이 많다.
- ④ 작품 생산의 다양한 외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화가의 내면 세계나 작품의 사회적 맥락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작품의 이해와 해석이 어렵다.
- ⑤ 주제를 담아내는 형식의 완벽성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자유로운 상상력 등 형식 이외의 가치 역시 중시하는 현대 미술가를 평가하기 어렵다.

2. ㉠, ㉡, ㉢에 대한 위 글의 서술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에 대한 서술에는 종교적 도상이 언급되어 있다.
- ② ㉡에 대한 서술에는 작가의 사적인 삶이 언급되어 있다.
- ③ ㉠, ㉡에 대한 서술에는 작품에 대한 당시의 반응이 언급되어 있다.
- ④ ㉡, ㉢에 대한 서술에는 해석이 필요한 남성의 존재가 언급되어 있다.
- ⑤ ㉠, ㉡, ㉢에 대한 서술에는 색채의 효과가 언급되어 있다.

3. <보기>를 통해 [시]에 대해 추론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서양 미술사에서 ‘유디트’는 연약한 여인이 나라를 구한다는 교훈적인 측면과 함께, 유디트의 아름다움이 주는 시각적 즐거움, 미색의 탐닉이 불러올 파국에 대한 경계라는 측면에서 남성 미술 애호가들이 즐겨 주문한 주제였다. 수많은 화가들이 그린 ‘유디트’ 중에서 카라바조의 <유디트>(1598)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화가는 이 그림에서 유디트를 소녀로 묘사하여 그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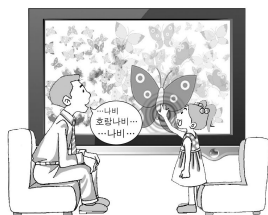
여성은 남성의 벗은 몸을 볼 수 없다는 당시 사회 통념 때문에 정규 미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젠틸레스키는 타고난 재능을 거의 독학에 가까운 노력을 통해 발휘할 수 있었다. 그녀는 카라바조의 <유디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비현실적인 자세와 구도를 비판하며 보다 현장감 넘치는 그림을 그렸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젠틸레스키의 <유디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화가 자신이며, 그녀를 겁탈한 개인교사가 홀로 페르네스로 그려졌다고 한다.

- ① 당시의 미술 애호가들은 젠틸레스키의 그림에 등장하는 여성 이미지가 이상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평가했을 것이다.
- ② 당시 미술계는 남성의 벗은 몸을 볼 수 없었던 젠틸레스키가 홀로페르네스의 신체 표현에 서툴렀기 때문에 저평가했을 것이다.
- ③ 당시 미술계는 정규 미술 교육도 받지 못한 여성인 젠틸레스키가 주목받던 선배 화가 카라바조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평가했을 것이다.
- ④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젠틸레스키의 그림으로부터 능동적인 여성상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이 평가했을 것이다.
- ⑤ 페미니즘적 미술 비평은 젠틸레스키의 그림이 여성 화가의 자화상이고 그녀의 아픈 상처가 이 그림의 창작 동인이 되었다는 점 때문에 새롭게 평가했을 것이다.

답 : 1-①, 2-③, 3-②

전통예술과 최근 예술

기차 안에서처럼  
린이 창문처럼  
면 대화 속의 단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 타기」



림 두 개의 의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옆에는 스크 설치되어 있다. 관람객들이 이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어 들에 상응하는 이미지들이 화면 가득히 나타나 입체적 낸다. 이는 소머리와 미그노뉴의 디지털 아트 작품인 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같은 최근의 예술적 시도들은

㉠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경계를 넘어 작품의 생성과 전개에 수용자를 참여시킴으로써 ㉡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분명 종래의 예술관에 대한 도전이다. 종래의 예술관은 수용자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술 감상을 미적 관조로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은 ㉢ 예술 이외의 모든 관심과 욕구로부터 ㉣ 초연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관조적 태도와 함께 예술 작품 자체도 모든 것에서 벗어난 순수한 객체가 됨으로써 이제 예술은 그 어떤 ㉤ 권위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율적 영역이 된다. 이 때문에 종종 예술은 쓸모없는 것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하지만, 현실의 모든 ㉥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 해방 공간으로 승화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최근의 예술적 시도들이 예술을 상호 작용 공간으로 만들 경우 미적 해방 공간마저 일상적 삶의 긴장과 갈등, 그리고 예술 이외의 관심과 욕구로 얼룩지고 마는 것인가? 넓게 보자면 인간은 세상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이란 세상과의 ㉧ 부단한 상호 작용의 결과이다. 상호 작용이 외적·내적 요인으로 인해 긴장과 갈등을 낳을 때, 인간의 경험은 대립과 분열 속에 빠지며, 이것이 지속될 때 삶은 위기를 맞는다. 반면 각각의 상호 작용의 고유성이 보호되면서도 이것이 하나의 전체 속에서 통일될 때 인간의 삶은 ㉨ 극치를 이룬다. 존 듀이는 이러한 통일성에 대한 체험을 ㉩ 미적 체험으로 간주한다. 물론 이러한 미적 체험은 현실적 삶에서 실현되기 어렵다. 오히려 이것은 예술 작품 속에서 상이한 요소, 행동, 사건, 주체들이 고유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통일성을 이룰 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듀이는 예술의 신성화가 아니라, **예술의 세속화** 를 원한다. 대립되고 분열된 일상의 수많은 상호 관계와 경험들은 이 세상 속에서 미적 체험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예술적 시도가 이러한 미적 체험을 실험하고 연습하는 장을 만든다면, 이는 예술 작품을 넘어 삶 속에서도 미적 체험을 성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데 수용자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예술 작품을 예술가만의 창작 결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 ② ㉡ : 수용자가 완결성을 갖는 작품을 변형하면서 이를 감상하는 것을 말한다.
- ③ ㉢ : 실용적, 윤리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욕구 혹은 과학적 호기심 등 예술 작품 자체를 향유하려는 것 이외의 관심과 욕구를 말한다.
- ④ ㉤ : 사람들이 삶의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예술 작품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 : 한 인간이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자신의 삶에 대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2. <보기>의 입장에서 '예술의 세속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응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세상은 의지의 표현이며, 이 의지는 스스로를 보존하려는 맹목적 충동일 뿐이다. 이 충동은 하나가 만족되면 새로운 충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인간은 맹목적 충동의 사슬이 불리일키는 불만족과 갈등에 시달린다. 미적 관조는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며, 인간은 잠시나마 이를 통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 ① 예술의 세속화는 자기 보존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
- ② 예술의 세속화는 상호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결국 예술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것은 아닐까?
- ③ 예술의 세속화는 역으로 예술을 인간의 맹목적 충동에 종속시킬 위험성을 갖는 것은 아닐까?
- ④ 예술의 세속화는 오히려 인간이 현실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것은 아닐까?
- ⑤ 예술의 세속화는 미적 관조를 현실 세계로 확산시키므로 삶의 통일성에 대한 경험을 가로막는 것은 아닐까?

**3. 위 글의 「인터넷 타기」에 대한 관람객의 반응 중, ㉠의 입장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전화기라는 단어를 말했다. 수많은 종류의 전화기가 실제 보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나타났다. 아마 작가는 영상을 활용하여 사물의 생생함을 전달하려고 한 것 같았다.
- ② 얼굴이란 단어를 말하자 수많은 얼굴 모습이, 인간을 말하자 다양각색의 사람들 이미지가 나타났다. 한순간이나마 세상의 관심과 욕구에 초연한 채 바로 내가 순수한 예술가가 된 것 같았다.
- ③ 정말 재미있었다. 내가 하는 말이 바로 영상으로 나타났고, 스크린을 만지니 영상이 정지하기도 했다. 이는 이 단어, 저 단어를 말하며 다양한 영상을 보았다. 컴퓨터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것에 감탄했다.
- ④ 우리는 대화를 나누며 인터넷 검색하듯이 대화 속의 단어에 상응한 이미지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스크린에 이미지로 등장한 사물들은 일상생활의 맥락에서와는 달리 무언가 신비스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았다.
- ⑤ 생활이 어려워 결혼반지를 팔았던 일을 아내가 이야기했다. 그런데 똑같은 반지만, 반지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옛일을 회상했다. 삶과 작품 공간이 하나가 되고, 이 속에서 아내와 나도 하나 되는 느낌을 받았다.

**4. ㉠~㉥의 사전적 의미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어떤 현실 속에서 벗어나 그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하다.
- ② ㉡ :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 ③ ㉢ : 마음을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림.
- ④ ㉣ :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다. 또는 그런 관계에 있다.
- ⑤ ㉤ :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취나 경지.

답 1-②, 2-⑤, 3-⑤, 4-④

**6. 27-31 교전복합**

상춘곡 - "올해의 평가원 출제예상 풀이법" 교재 p15-16 / 평가원 100% 독과법 p109

율리유곡 - "올해의 평가원 출제예상 풀이법" 교재 p14-15

27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 - 설의적 표현

문학 개념어와 논리적 해석 p469. 3-2. 설의

상춘곡 - "올해의 평가원 출제예상 풀이법" 교재 p15-16 / 평가원 100% 독파법 p109

율리유곡 - "올해의 평가원 출제예상 풀이법" 교재 p14-15

‘백구’(白鷗)는 언제나 친화의 대상인가?

(가) 잃어버렸습니다. /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 찾는 까닭입니다.

- 윤동주, 「길」 -

(나) 도연명 주근 후에 또 연명(淵明)이 나뒀말이,

밤마을 옛 이름이 마초와 같을시고,

돌아와 수졸전원(守拙田園)\*이야 그와 내가 다르랴.

공명(功名)도 있었노라 부귀도 있었노라

세상 번우(煩憂)한 일 다 주어 있었노라

내 몸을 내마져 잊으니 남이 아니 잊으랴

강산 한아(閑雅)한 풍경 다 주지 말아 이서

내 혼자 임자이니 뒤라서 다툼소나  
남이야 심술궂다 여긴들 나눠 볼 줄 있으랴

헛글고 쇧근\* ㉠문서 다 주어 후리치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이다 이대도록 시원하랴

질가마 깨끗이 씻고 바위 아래 샘물 길어  
㉢팔죽 달게 쑤어 절이김치 꺼내 먹으니  
세상에 이 두 맛이야 남이 알까 하노라  
어와 저 ㉣ 백구(白鷗)야 무슨 수고 하느냐  
갈 숲으로 바자니며\* 고기 얻기 하는고야  
나 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

-김광옥, 「율리유곡(栗里遺曲)」-

\* 수출전원 : 전원에서 살고자 하는 우직한 태도와 본성

\* 헛글고 쇧근 : 흠어져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 바자니며 : 오락가락하며.

다)

청하(靑荷)<sup>■</sup>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蘆荻) 화층(花叢)<sup>■</sup>에 배 매어 두고  
일반(一般) 청의미(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無心)코 다정한 이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는 화자의 상실감과 상실한 대상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나타난다.
- ② 6연에 나타난 ‘길’은 화자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을 의미한다.
- ③ 5연의 ‘돌담’은 ‘하늘’과 상반되는 의미를 형성한다.
- ④ 1~5연에서는 지상으로 천상으로 시선이 이동하면서 자아 성찰의 과정을 보여 준다.
- ⑤ 2~3연에서는 ‘돌담’과 ‘쇠문’을 연달아 제시하여 단절의 의미를 강조한다.

### 2. 가의 화자가 ㉤ ‘찾는’ 대상과 거리가 먼 것끼리 묶은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답 : 1-②, 2-②

‘도화’(桃花), 무릉도원은 이상향인가?

1)

이바 니웃드라, 山水(산수) 구경 가자스라. 踏靑(답청)\*으란 오늘 흐고 滑沂(욕기)\*란 來日(내일) 흐새. 아  
 춤에 採山(채산)흐고, 나조히 釣水(조수)흐새. 又 괴여 닉은 술을 葛巾(갈건)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和風(화풍)이 건듯 부러 綠水(녹수)를 건너 오니, 清香(청향)은 잔에 지고, 落紅  
 (낙홍)은 옷새 진다. 樽中(준중)\*이 뷔였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小童(소동) 아히드려 酒家(주가)에 술을 물  
 어, 얼운은 막대 잡고, 아히는 술을 메고, 微吟緩步(미음 완보)흐야 시냇그의 호자 안자, 明沙(명사)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清流(청류)를 굽어보니, 썬오느니 ㉡桃花(도화) |로다. 武陵(무릉)이 갓잡로다,  
 저 덕이 권 거인고. ㉢松間(송간) 細路(세로)에 杜鵑花(두견화)\*를 부치 들고, 峰頭(봉두)에 급피 올라 구름  
 소귀 안자 보니, ㉣千村萬落(천촌 만락)이 곳곳이 버러 잇네. 煙霞日輝(연하 일휘)\*는 錦繡(금수)를 재펏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有餘(유여)흐샤. 功名(공명)도 날 썬우고, ㉤富貴(부귀)도 날 썬우니, 淸風明  
 月(청풍 명월) 外(외)에 엇던 벗이 잇스올고. 簞瓢陋巷(단표 누항)\*에 흐튼 혜음 아닌 흐네. 아모타, 百年  
 行樂(백년 행락)이 이만흐들 엇지흐리.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에서 -

- \* 踏靑(답청) : 봄날 파랑계 난 풀을 밟는 민속
- \* 滑沂(욕기) : 냇물에서 목욕함
- \* 樽中(준중) : 술동이 속
- \* 杜鵑花(두견화) : 진달래꽃
- \* 煙霞叢日輝(연하일휘) : 안개와 놀이 빛나는 햇살
- \* 簞瓢陋巷(단표 누항) : 선비의 소박하고 청빈한 살림

1. <보기>의 설명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은 ㉠~㉤ 중 어디인가?

< 보기 >

- 한국 고전 문학의 관습화된 상징 중의 하나이다.
- 연상 수법을 활용했다.
- 동양 고전에 대한 보편적 교양에 바탕을 둔 표현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답 1-⑥

문학 개념어와 논리적 해석 p469-470

<설의(設疑)>

‘설의’의 ‘설’(設)은 ‘베풀 설’자입니다. 의문을 일부러 설정했다는 뜻입니다. 즉 누구나 아는 사실을 짐짓 의문 형식으로 제시하여 읽는 이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맛있게 평서형으로 쓰는 것보다 변화를 주는 것이죠. ‘기쁘다’가 아니라 ‘어찌 기쁘지 않으리’, 이런 식으로요. 주의할 점은, 설의적

의문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또는 ‘상대’에게 의문 형식을 통해 강조하기 때문에 **영탄적 어조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예문들을 볼까요?

가)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한들 엇지하리.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 오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나)

노래 가락은 흔들리고  
별들 춤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때랴

- 이육사, ‘소년에게’ -

다)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랴.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蘆荻) 화총(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一般) 청의미(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魚舟)에 누어신들 잇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가)의 밑줄 친 부분은 ‘이렇게 사는 게 좋다’. ‘기쁘다’는 뜻을 의문형을 설정하여 드러낸 것입니다. 나)는 2009년 9월 평가원에 출제된 시인데 전체 시를 읽을 때 그 뜻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설의법을 설명하기 위해 부분만 언급했어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너는 미쳐도 좋다’는 뜻을 드러내기 위해 설의법을 구사한 거죠. 다) 역시 밑줄 친 부분이 모두 설의적 의문들입니다. 차례대로 현대어 긍정문으로 고치면 ‘날 가는 줄을 모른다, 어느 분도 모른다, 잇은 때가 없다, 제세현 - 세상을 구한 현명한 사람이 나 말고 있다’로 고칠 수 있습니다. 시조, 가사, 고소설을 두루 살펴볼 때, 우리 고전의 상당부분이 설의적 의문형식을 취하고 있음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글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설의적 의문’을 전통적인 표현법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7. 수능 47-50. 고소설 '운영진'

평가원 100% 독파법 <소설과 공간> p277-279

47번. 은섬이는 원망하지 않았다.

49번. <보기> 감상. 고소설의 현실성

- 평가원 100% 독파법 p127-129

### 운영진

#### 앞부분 줄거리

[선조 34년 '유영'이라는 선비가 옛 안평대군의 거처인 수성궁을 노닐다가 잠에 든다. 취중에 잠이 든 유영은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된다.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은 재능이 있는 선비들과 교류하였는데, 소년 선비 김 진사도 그 중 하나였다. 안평대군은 또 지혜와 미모를 겸비한 궁녀를 뽑아 시문을 가르쳤는데, '운영'은 특히 대군의 총애를 받는 궁녀였다. 운영은 결혼은 물론이고 바깥출입도 할 수 없는 처지였으나, 어느 새 김 진사와 사모하는 사이가 된다. 두 사람은 안평대군의 눈을 피해 목숨을 건 사랑을 나누게 되고 심지어 김 진사가 수성궁의 담을 넘어와 밤마다 밀회를 나누는 사이로까지 발전한다. 결국 김 진사는 운영을 궁에서 탈출시킬 계획을 세운다.]

대군이 대표하여 남궁인으로 하여금 서궁을 찾아보게 한즉 저의 의복과 보화가 전부 없어졌으므로, 대군이 서궁 궁녀 다섯 사람을 뜰에 불러 놓고, 刑杖을 엄하게 차려 놓고 영을 내리기를,

“이 다섯 사람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징계 하라!”

하시고는 집자 한 사람에게

“장수를 헤아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치렀 다!”

이에 다섯 사람이 호소하였습니다.

“바라건대 한 번 말이나 하고 죽겠나이 다.”

하고 은섬이 초사(招辭)를 올리니, 대군이 보기를 마치고 나시더니 또 한 번 초사를 다시 펴고 보시는데, 노여움이 좀 풀리는 것 같으므로 소옥이 엮드려 울면서 아뢰었습니다.

“전날 빨래하러 갈 때에 성안으로 가지 말자고 한 것은 저의 의견이었으나, 자란이 밤에 남궁으로 와서 매우 간절히 청하기에 제가 그 뜻을 안타까이 여겨 군의(群議)를 물리치고 따랐사옵니다. 운영의 훼손(毀節)은 그 죄가 저의 몸에 있사옵고 운영에게 있지 아니하오니, 저의 몸으로써 운영의 목숨을 이어 주옵소서.”

이에 대군의 노여움이 좀 풀어져서 저를 별당에다 가두고 다른 궁녀들은 다 돌려보냈는데, 그날 밤저는 비단 수건으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진사는 붓을 잡아 기록하고 운영은 옛일을 당겨서 이야기하는데 매우 자상하였다.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슬픔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다가, 운영이진사보고 말하였다.

“이로부터 다음 이야기는 낭군님께서 하옵소서.”

이에 진사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운영이 자결한 후 모든 궁인들이 통곡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부모가 돌아간 것과 같이 했습니다. 저는 공불(供佛)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어 구천의 영혼을 위로해 주고자 보석을 다 팔아 사십 석을 사서 청녕사로 보내어 재를 올리하고자 하나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특을 불러 전일의 죄를 사하고,

“내 운영을 위해 초례(醮禮)를 베풀고 불공을 드려 발원을 빌고자 하니, 네가 가지 않겠느냐?”

특이 즉시 절로 가서 삼 일을 궁둥이를 두드리면서 누워 놀다가, 지나가는 마을 여인을 강제로 끌고 들어와 승당에서 수습 일을 지내고도 재를 올리지 않으므로 중들이 분히 여겨 재를 올리라고 하며, 특이 마지 못하여,

“진사는 빨리 죽고 운영은 다시 살아나 특 의 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와 같이 삼 일을 밤낮으로 발원하는 말이 오직 이것뿐이었습니다.

<중략>

저는 후에 중들로부터 특이 한 일을 자세히 듣고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목욕 재계하고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 절을 하고 향불을 사르면서 합자하고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칠 일만에 특이 우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러한 후로부터 저는 세상일에 뜻이 없어 새 옷을 갈아입고 고요한 곳에 누워 나흘을 먹지 않고 한 번 깊이 탄식하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쓰기를 마치자 붓을 던지고 두 사람은 마주보고 슬피 울면서 능히 스스로 그칠 줄을 몰랐다. 유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났으니 소원이 없겠습니까. 원수인 종도 이미 없어졌고 통분함도 사라졌을 것인데, 어찌 슬퍼하여 마지않는 것입니까? 다시 인간에 나오기를 얻지 못하여 한(恨)하는 것입니까?”

김 진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례하고 말하기를,

“우리 두 사람은 다같이 원한을 품고 죽었기로 염라대왕이 죄 없음을 가련히 여기시어 다시 인간에 태어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의 즐거움이 인간보다 못하지 않는데 하물며 천상의 즐거움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로써 인간에 나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에 슬피한 것은 대군이 한번 돌아가시자 고궁에 주인 없고 까마귀와 새들이 슬피 울고 사람의 자취가 이르지 않으므로 그리 했을 뿐입니다. 거기에서 새로 병화(兵禍)를 겪은 후로 아름답고 빛나던 집이 재가 되고 섬돌과 담이 모두 무너지고 오직 섬돌 위에 피어 있는 꽃만이 향기 만발하고, 뜰에는 풀만이 깔리어 그 빛을 자랑할 뿐이니, 그 찬란하던 옛날의 모습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지만, 인간사 변화가 이와 같거늘 다시 옛일을 생각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습니까.”

<중략>

“바다가 마르고 돌이 불에 타 버린들 우리들의 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오늘 저녁에 존군(尊君)과 서로 만나 이렇듯 따뜻한 정을 나누었으니 속세의 인연이 없으면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존군께서는 이 원고를 거두어 가지시고 돌아가 못 사람의 입에 전하여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영원히 전해 주시오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더니 김 진사는 취하여 운영의 몸에 기대어 시 한 수를 읊었다.

궁중에 꽃이 떨어지니 연작이 날고

봄빛은 예와 같건만 주인은 없네.

중천에 높이 솟은 달은 차갑기만 한데

아직 푸른 이슬은 우의를 적시지 않는구나.

운영도 받아서 읊었다.

고궁의 고운 꽃 봄빛을 새로 띠니  
천만 년 우리 사랑 꿈마다 찾아오는구나.

오늘 저녁 여기 와 놀며 옛 자취 찾아보니  
막을 수 없는 슬픈 눈물 수건을 적시네.

이 때 유영도 취하여 누워 있다가 잠에 빠졌는데 산새 소리에 깨어났다. 구름과 연기는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은 창망한데, 사방을 살펴보니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김 진사가 기록한 책자만이 있었다. 유영은 쓸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신책을 거두어 돌아왔다. 장 속에 감추어 두고 때때로 내어 보고는 망연자실하여 침식을 전폐하다시피 하였다. 그 뒤 명산을 두루 찾아다니더니 그 마친 바를 알 수 없다고 전한다.

- 작자 미상. 운영전(雲英傳) -

**1. 다음은 이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한 광고 문구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중 궁궐에서 은밀하게 전개된 비극적 사랑이야기!
- ② 죽음을 통한 사랑의 성취, 이보다 고귀한 사랑은 없다!
- ③ 위험한 사랑, 그러나 누가 과연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막을 것인가!
- ④ 감정은 흘러가는 물과 같은 것! 사랑의 허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이야기!
- 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말을 듣고 지상과 천상을 넘나드는 환상적인 이야기!

**2. 윗글의 서사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의 발생과 서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다.
- ② 사건에 대한 정보 전달자가 장면에 따라 교체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의 속성이 사건의 의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④ 운문을 삽입함으로써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사건을 유연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 ⑤ 현실과 꿈이 교차되는 이원 구조를 통해 인생과 사랑의 허무함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3. 윗글을 원작으로 하는 TV 드라마를 제작하려고 한다. 제작진의 회의에서 나온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드라마의 주제가 작품의 내용을 고려하여 슬프고 애잔한 느낌을 주는 노래로 정하는 것이 좋겠어요.
- ② 궁녀들이 문초를 당하는 장면에서는 운영을 원망하는 듯한 표정으로 대군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이 좋겠지요.
- ③ 운영과 김 진사는 감정에 북받쳐 흐느끼는 모습을 자주 보여 주어야 하니 연기 연습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 ④ 운영과 김 진사가 시를 읊을 때 두 사람을 각각 클로즈업해서 보여 주고, 슬픈 표정으로 이를 듣는

유영의 모습을 삽입 화면으로 끼워 넣으면 어떨까요?

- ⑤ 촬영을 위한 무대 장치는 두 가지로 제작해야 돼요. 안평대군이 살아 있을 당시의 장면은 화려한 궁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유영'이 죽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는 퇴락한 고궁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정답. 1-④, 2-⑤, 3-②

#### 49번. <보기> 감상. 고소설의 현실성

- 평가원 100% 독과법 p127-129

#### [보기] 문제 감상법 - 소설의 현실성

[A] : 이윽고 서씨의 몸은 성벽의 저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서씨가 성벽 위에 몸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벽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금고만한 돌덩이를 그의 한 손에 하나씩 집어서 번쩍 자기의 머리 위로 치켜 올린 것이었다. 지렛대나 도르레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혹은 여러 사람이 달라붙지 않고서는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를 가진 돌을 그는 맨손으로 들어 올린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보라는 듯이 자기가 들고 서 있는 돌을 여러 차례 흔들어 보이고 나서 방금 그 돌들이 있던 자리를 서로 바꾸어서 그 돌들을 곱게 내려 놓았다.

나는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고담(古談) 같은 데서 등장하는 역사(力士)만은 나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 한밤중에 바로 내 앞에서 푸르게 빛나는 조명을 온몸에 받으며 성벽을 디디고 우뚝 솟아 있는 저 사내를 나는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다.

역사, 서씨는 역사다, 하고 내가 별수 없이 인정하며 감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귀기(鬼氣)에 찬 광경을 본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에 그는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령처럼 내 앞에서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서씨는 역사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서씨의 얘기를 들었다.

[B] : 그는 중국인의 남자와 한국인의 여자 사이에서 난 혼혈아였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역사들이었다. 족보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수가 있다고 했다. 그네들이 가졌던 힘,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유일한 유물이었던 모양이었다. 그 무형의 재산은 가보로서 후손에게 전해졌다. 그것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영광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서씨에 와서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이제 와서 그 힘은 서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서씨는 그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남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만큼만 땅을 팠다.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씨는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한밤중을 택하고 동대문의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冥府)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낮에 서씨가, 동대문의 바로 곁에 서서 행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 한 개의 위치 변화에 관심을 보내지 않고 지나다닐 때, 옮겨진 돌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나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이 서씨가 간직하고 있는 자기였고 내가 그와 접촉하면 할수록

빨려 들어갈 수 있었던 깊이였던 모양이었다.

그 집—그늘 많은 얼굴들이 살던 그 집에서 나는 나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안주(安住)에의 동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헤어날 길 없는 생활 속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곳을 꼭 떠나서 이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에 오자 그것은 견디어 낼 수 없는 권태와 이 집에 대한 혐오증으로 형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나란 놈은 아마 알 수 없는 놈인가 보다.

피아노 소리가 그쳤다. 무의식중에 나는 방바닥에서 팔목시계를 집어 올렸다.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던가를 깨닫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일도 그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서 그 시간들을 비교하며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의 이유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자신에 대해서 어이가 없음을 느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전에 내가 서씨의 그 거짓 없는 행위를 회상했던 덕분이 아니었을까? 서씨가 내게 보여 준 게 있다면 다소 몽상적인 의미에서의 성실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 양옥 속의 생활을 비판하는 데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고 내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집으로 옮아온 다음날의 저녁, 식사 시간도 잡담 시간도 지나고 모든 사람들의 공부 시간이 되자 나는 홀로 내 방의 벽에 기대앉아서 기타를 튕겨 보기 시작했던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불현듯이 기타를 켜고 싶어지는 때가 있는 법이다. 그것은 감정의 요구이지만 그렇다고 비난할 건 못 되지 않는가. 내가 줄을 고르며 음을 시험해 보고 있는데 다색(茶色) 나왕으로 된 내 방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리고 나의 기타 켜는 시간은 오전 열시부터 한 시간 동안 할머니와 며느리가 미싱을 돌리는 같은 시각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가풍이 내게 작용한 첫 번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내가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용해 본 적은 하루도 없었다. 흥이 나지 않아서였다고 하면 적당한 표현이 되겠다.

- 김승옥, 「역사(力士)」 -

### 1. <보기>를 바탕으로 [A], [B]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김승옥은 「역사」에서 일반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사실성을 추구하였다. 이 작품의 창작 의도를 밝힌 글에서 그는, “우리의 눈에는 비사실적인 것도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했다. 작품 속의 ‘동대문 성벽의 돌덩이 옮겨 놓기’라는 소재는, 이를테면 ‘외국인의 눈’을 통해 새롭게 ‘변형’된 것이다. 작가는 ‘변형’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작중 상황에 실감을 주는 소설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 ① ‘금고만 한 돌덩이’는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비사실적인 소재이겠군.
- ② ‘동대문’이라는 낯선 배경을 제시하여 독자들이 느끼는 실감을 떨어뜨리고 있군.
- ③ ‘서씨’ 가게의 내력을 제시한 것은 ‘서씨’의 행위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이군.
- ④ ‘푸르게 빛나는 조명’은 ‘서씨’의 신성한 면모를 일상적인 모습으로 ‘변형’하려는 의도에서 설정된 것이겠군.
- ⑤ ‘나’가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는 것은 ‘돌덩이 옮겨 놓기’가 사실이 아니라 환상이었음을 암시하고 있군.

답. : 1-③

[앞부분의 줄거리] 마을 동쪽 집 남자 효렴에게 마음이 있던 향량은 부모님의 뜻대로 서쪽 집으로 시집을 가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박대로 쫓겨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원치 않는 개가를 강요당한 향량은 물에 빠져 죽는다. 천상계의 존재가 된 향량은 효렴이 자신에게 올린 제문에 감동받아 그를 찾아간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닭이 새벽을 알리고 셋별이 반짝거렸다. 향량은 곧 일어나며 “말하자면 기니, 훗날을 기약하지요.” 하다가 갑자기 다시 슬퍼지면서 물었다.

“스스로 중매를 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섬기는 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스스로 오지 않았다면 무엇으로 그대를 믿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언짢아하지 않으신다면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마음이 통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이별하려다가 다시 뒤돌아서 효렴과 인연을 맺고자 하는 소원을 거듭거듭 전했다.

효렴 또한 더욱 잊을 수가 없어 문에 기대어 우두커니 서서 바라다보다가 계단을 내려서서 몇 발자국 떼는데, 순식간에 종적이 없어졌다. 효렴은 안타까운 마음을 이기지 못해 잠자리에 누웠어도 몸만 뒤척이며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종이를 꺼내 큰 글씨로 절구 하나를 지었다.

선녀도, 귀신도 아니고 사람이라 하네  
청조가 날아오더니 소식이 새롭구나  
바다는 넓고 산은 높은데 훗날을 기약하니  
꽃다운 자태는 다시 오지 않아 청춘을 원망하네

시가 완성되자 또 사랑스레 어루만지다가 시간이 얼마 지나 자리에 들어서서 잠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향량이 남긴 종이 한 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데, 글은 위부인을 본받은 것이었고, 시는 두추량의 <금루사>를 본받은 것이었다. 시는 다음과 같았다.

일찍이 인간 세상을 좇아 잠시 사람이 되어  
전에 좇지 않은 것 후회스러워 새 약속을 맺네  
그대 마음 해와 달처럼 변함없음을 아니  
추운 계곡에 앉았어도 봄별 따뜻하게 피어나네

또 글은 다음과 같았다.

굳은 맹세 전날 밤에 맺었고 아름다운 인연 내세를 기약했네. 옛 사람이 새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며, 새 사람이 옛 사람 아니라고 믿지 마라.

효렴은 기쁨이 극에 달해 도로 슬퍼지며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다.

이날 향량은 후토 부인 앞에 나아가 그 이유를 다 아뢰고, 천제께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결혼하게 해 달라고 청한 것을 아뢰었다.

“몸의 형체는 이미 소상이 지났으나 성씨는 다를 바가 없고, 이승과 저승 사이의 명부도 달라지지 않았습시다. 속은 귀신이지만 겉으로는 사람에 지나지 않으니 이대로 인간으로 환생한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어느 동네 누구누구의 자식으로 어느 지역에 사는 아무개가 일찍이 어느 동네 아무개의 처가

되었다가 지금은 또 어느 동네 아무개의 부인이 되었다.'고 수군거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 년이 지나도록 부끄러운 행위를 했다는 이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비록 집에서 말을 한다 해도 어찌 능히 스스로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면서 행동하면 이름을 날릴 수 없고 의심하면서 일을 하면 공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 비록 죽었으나 죽지 않아서, 죽은 지 일 년이 지나도 얼굴과 모습은 여전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하물며 버림받은 아내가 다시 재혼한다 해도 몇몇한 정에 비추어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살아난 일만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죽었던 일도 진실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소문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니 사람의 말 많음 또한 두렵습니다. 나이와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서쪽에 살던 남자에게 버림받은 부인이 버젓이 동쪽에 사는 남자 집에 있다면 옛 남편과 새신랑이 같은 동네에 사는 꼴이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비웃으며 손가락질할 것은 진실로 이와 같습니다. 진실로 이렇게 된다면, 연못가에 신발을 벗어놓고 자살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로운 열녀라는 정려와 포상은 모두 사람을 속인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아비와 시어미가 죄를 묻고, 종들이 몰래 웃고, 친척들이 부끄러워하고, 이웃들이 내놓고 모멸하는 것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천지에 받아들여질 곳이 없으니, 이미 스스로 자초한 것을 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니 영혼과 형체를 돌이켜 인간 세상에 새롭게 다시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실로 천지의 후덕하심을 입어 뼈와 살이 아직 썩지 않았고, 정신이 생전에 비해 못하지 않으니, 자식처럼 여겨 주시는 후토 부인의 은혜와 살 길 열어 주기를 좋아하시는 선성(仙聖)의 덕이 지극하고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는 양지와 양능이 있는데, 이는 하늘이 내려 주신 것이어서 일과 마음이 서로 어긋나면 행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바라기는 부인께서 자비를 크게 더 하셔서 신통한 능력을 널리 베푸사 방법을 빨리 마련하셔서 은혜를 머금은 몸으로 하여금 못 다한 회포가 없게 해 주신다면 그 은혜가 막대하다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진댄 비록 몸은 선가에 돌아가고 뼈를 황천에 묻는다 할지라도 끝내 이 몸을 혐의로운 곳에 두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저의 뜻입니다.”

- 김소행, 「삼한습유」 -

1.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하기 위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김소행은 문장에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었지만 서얼의 후손으로 그것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향량은 실존했던 인물로 조선 후기 사대부들에게 열녀로 여겨진 인물이다. 김소행은 향량의 행적을 바탕으로 하면서 거기에 환상을 더하여 「삼한습유」를 지었다.
- 고전 소설에서 환상은 불우한 삶을 산 인물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성취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상에는 작가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으며, 또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기도 하다.

- ① 죽은 향량이 살아 있는 효령에게 나타나고, 또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것을 통해 환상으로서의 작품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어.
- ② 향량이 스스로 중매를 하고 또 후토 부인과 천제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는 것은, 환상에서 인물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성취하려는 맥락에서 봐야 할 것 같아.
- ③ 향량이 직접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밝히도록 함으로써, 작가는 비현실적 환

상이 지니는 교훈적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아.

- ④ 작가는 환상을 통해 사대부들에게 열녀로 여겨진 향량을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는 인물로 변모시킴으로써 당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
- ⑤ 향량은 살아서는 효렴과의 인연을 맺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우한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어. 이러한 모습에는 현실에서 제 뜻을 펼치지 못한 작가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

이성권 출제 2-3번.

**2.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유교적 가치관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
- ② 사회적 통념에 배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③ 애정의 실현 방식을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
- ④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한다.
- ⑤ 인간 세상의 일은 천상계의 힘으로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3. 다음 [보기]를 토대로 '개가(改嫁)'와 '애정'에 대한 향량의 생각을 가장 정리한 것은?**

**[보기]**

삶의 태도와 방식을 '내용'과 '형식'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형식'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알맞은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실현할 수 없다. 또 하나는 내용 중심적 삶의 태도이다.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내용을 도외시한다면 내용이 없는 형식에 불과하다. 형식은 내용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 ① '개가'는 기존 형식의 탈피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 ② 애정은 형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어떤 형식도 수용할 수 있다.
- ③ '개가(改嫁)'가 애정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형식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 ④ 애정을 실현하는 방식도 형식과 조화를 이룰 때 가치가 있다.
- ⑤ 개가(改嫁)와 애정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내용과 형식을 초월하여 자신의 뜻을 천상에 전달하는 것이다.

답 : 1-③, 2-④, 3-④